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2. 주제를론



“새로운 정치세력 나서서 우리 포천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각계각층 의견수렴 市政
반영으로 사회통합 이루겠다”

▶**사회자** : 이상으로 후보님들의 정견발표를 마치고 곧바로 주제별 토론회에 들어갑니다.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2회에 나누어 각 후보들로 발표를 하되 각 1회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각 후보자님께서는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교통난 해소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 됩니다.

각 주제별 배당된 시간은 3분입니다. 2분 50초가 지나면 초인종이 울리고 10초가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고 사회자가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할 주제는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입니다. 먼저 서장원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지역통합 사실상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합동 총리가 상당 오랜 기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어찌 보면 한 분에게 편중되어서 거의 다른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잘 화합하고 있었었다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지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낙마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고조흥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포천의 정치 현실이나 사회지도자층 모든 분들이 어수선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서 우리 포천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당, 계파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원로들을 통합하고, 또 시를 운영하는 시장에서는 자기와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장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통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장에 반영하고 그런 시장을 정치인들이 다르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래도 그분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포천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박윤국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역시라는 것은 무엇이나 이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통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사실이 없으면 지역을 통폐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천시장이라는 자리가 누구 개인에 의한 자리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지방선거는 정당의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포천 16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천이라는 이런 시민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경영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자를 뽑는 것이고, 역시 지역의 통폐합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생각. 그리고 시가 시의원, 지도층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각기 통합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주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안다는 것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흥찬기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私心이 없으면 지역통합이 가능하다”

“시장이 없어도 경영이 가능한
포천시 건설해야 한다”

▶**무소속 흥찬기 후보** :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배들이 살아오신 과거의 농정사회는 언제나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른들이 불러서 꾸짖고 그리고 판단해 주셔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보화로 접어들면서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만연되고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이럴 때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그 지역의 어른은 역시 그 지역의 정치적인 어른, 행정적인 어른이 그 지역의 판단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의 위기라는 것은 포천의 정신적인 지주가 부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가지 비극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선배인 분들이 이 지역에 노인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노인회가 포천 노인회에 지부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몇 개월이 그냥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했는지 자질이 없는지 시비가 걸려서 접장은 어른이 당선되기도 취임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사회가 연일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천이 황당한 사회가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는 그런 일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임무를 방지하고 노인들을 서로 할말고 하는 사회를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이끌고 통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불의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포천의 지역화합을 얘기하는 자체는 일종의 년센스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께서 하나된 무리로 가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주셔야 됩니다. 무릇 지도자는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몰입한다면 불의의 불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규제해서 지역통합을 노력하는 것만이 포천사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할 주제는 교통난 해소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흥찬기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무소속 흥찬기 후보** : 3분입니다?

▶**사회자** : 예,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무소속 흥찬기 후보** : 우선 3분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은 러시아워에는 축에서부터 송우리까지는 주차장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우선 급한 것은 축에서부터 하송우리까지만이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시급히 설치해서 단 몇 년 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책을 따져보니까 축에서부터 1차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년에 배정이 된 예산이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까지가 아니라 하송우리까지 해서 통합 아마 예산이 대체로 저는 확실한 계수를 모릅니다. 700억, 800억 들면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7~800억 예산이라는 것은 포천시장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왜 이것을 방지해서 주민들을 괴롭게 하고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건설된 아파트는 입주할 수 없게 하고, 지역의 학생들을 외부로 내보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포천을 동북권 관광벨트로 묶어서 발전시킨다고 말해왔는데 백운계곡 가보니까 10년 전의 백운계곡이나 지금의 백운계곡이나 한낱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백운계곡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백운계곡의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요지가 광동학원과 봉선사의 소유지입니다. 봉선사, 광동학원이 업주 개인,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알아서 뭘 했습니까?

광동학원과 봉선사가 일괄계약해서, 임차료를 주고, 업주한테 또 재계약을 해서 받게 하는 식으로 장기계약을 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왜 오늘과 같은 정발 불상스럽게 사나운 그런 백운계곡을 유지해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포천의 경제가 동북권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자질시비 포천노인회장 空席 남부끄러운 사회

“지역통합만이 포천시 재건의
유일한 길”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천시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비해서 약 1.4배가 넓은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약 3,000억 정도, 당초 예산이 2,600억인데 하송우리까지가 아니라 바로 광릉을 우회도로로 이 사업들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이런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장이라는 그 역할은 정부나 아니면 광역 어떤 예산을 갖다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마을 안길 도로포장하는 것도 일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상 국도의 정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려 단계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됩니다.

제가 43번 국도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43번 국도에 민락동으로부터 포천시 무봉리를 지나서 하송우리까지, 하송우리까지가 아니라 바로 광릉을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미 개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중에 있고, 광릉을까지의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사업들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조건에서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소송을 들어온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꼭 육상만 교통이 아닙니다. 해상이나 아니면 항공역세권도 3대 역세권을 갖고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번 국도의 정체 해소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포천시의 미래에 대한 이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을 정부와 다각적으로 논의해서 6개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서 BRT 사업을 이루었다는 46번 국도나 47번 국도라든가 이런 각종 많은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열심히 관심을 갖고 언제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토지주라든가 주민들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약 360만평의 새로운 신도시 안에 저희들이 철도건설용 신도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 16만을 위해서 정부가 절대로 여기에 철도를 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 바로 스스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추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장원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우선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흥찬기 후보님 말씀하고 별도로 동의를 하면서 교통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따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해놓고 지금 산업지의 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타운 형식으로 되어있어 교통난을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우리가 지금 32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역 내에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생산기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순환입니다. 돈이 돌아가야 됩니다. 돈벌 곳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장이나 우리 의회나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나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사회통합과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일을 추진한다면 교통난 해소는 해결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제 임기내에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